

현장전문가가 지각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특성에 대한 질적 연구*

Family relationship of North Korean refugees: Views from field experts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조은숙
공주대학교 기술·가정교육과 조교수 김소영**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김민경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 Assistant Professor: Cho, Eunsuk
Dept.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
Assistant Professor: Kim, Soyoung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 Associate Professor: Kim, Minkyong

목 차

- | | |
|--------------------------|------------|
|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 IV. 연구결과 |
| II. 북한이탈주민 가족 관련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함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a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family education program aimed at improving family relationship of North Korean refugees. In order to do so, we collected qualitative data on family issues of North Korean refugees from field experts who deal with North Korean refugees in

* 본 논문은 연구진들이 공동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8)의 일부를 보완하고 발전시킨 것임.

** 교신저자: syoungkim@kongju.ac.kr

(Acknowledgement: The author(s) declare(s) that there is no conflict of interests regarding the publication of this article)

various settings. **Method:** Seven field experts dealing with North Korean refugees participated in face-to-face in-depth interviews, and shared their view on family formation, marital relationship,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of North Korean refugees. Interview results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Results:** Views of field experts on family form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were categorized into motivations for marriage, nationality union, marriage types, while issues related to marital relationship were categorized into causes of marital conflicts, response to such conflicts, and marital strengths. In parent-child relationship, what field experts shared with us were grouped into difficulties in raising children in South Korea, parent-child conflicts, and response to parent-child conflicts. **Conclusion:** Based on the findings from content analysis, implications for timely and effective intervention to improve family relationship of North Korean refugees were suggested.

주제어(Key words): 북한이탈주민(North Korean refugees), 가족관계(family relationships), 현장전문가(field experts dealing with North Korean refugees), 개입(intervention)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2016년에는 3만 명을 돌파하여 지난 2019년 6월 기준으로 총 33,022명이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하기에 이르렀다(Ministry of Unification, 201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각 영역의 고유한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이슈와 논점들은 다양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정치적이슈나 국제관계적 이슈라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혹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생존과 적응이라는 현실적 삶의 측면,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적 관계의 의미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에 적응해 나가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가족의 해체와 남한 정착 후 이루어진 가족의 재구성으로 인하여 이들만의 독특한 가족

관계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가족은 북한에 남은 가족에 대한 심리적이고 경제적 부담,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낮은 친밀성,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직업, 남한생활적응에서의 스트레스, 탈북과정에서의 외상적 경험 등으로 인해 가족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ng, Kim & Park, 2012; Kim, 2018; Lee & Kim, 2007; Yi, Cho, Kim & Chin, 2007).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부부는 남편과 아내의 출신지가 북한, 중국, 남한 등으로 다양하며, 자녀를 얻게 되는 배경 또한 다르다. 가족원 각각의 입장 차이와 기대의 차이, 서로 다른 문화적 이질성을 간파하는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배우자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부부 간 성역할 인식이나 태도의 차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부부 간 심각한 갈등이나 폭력이 나타나고, 별거와 이혼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Kim, 2018; Kim, Ryu & Kim, 2014; Lee & Kim, 2007; Yi et al., 2007).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부부의 이질적 요

인들과 갈등은 삶의 맥락 가운데에서 예견되는 부분으로 부부 간 갈등의 간극을 좁히고 조율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여성은 남한 입국 후 남편이나 친척들의 도움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양육 방식 및 정보가 부족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이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도 겪게 된다(Cho, 2012; Hong et al., 2012; Kim, Cho & Kim, 2012; Park & Kang, 2011). 북한이탈가족의 자녀는 남한의 보통 아이들이 받는 부모로부터의 보살핌이나 학습지원 등이 부재한 가운데 양육되고 있어, 탈북과정에서의 수년간의 학업결손과 불안정한 생활기반 등으로 인한 어려움, 부모와의 갈등, 남한 정착과정에서의 정서적 어려움, 학업부진, 학교적응문제, 중도탈락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Hong et al., 2012; Shin & Kim, 2015).

이상과 같이 북한이탈주민 가족은 가족형성에서부터 쉽지 않은 출발과 불안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실제적인 부모역할과 자녀양육을 위한 문제해결기술의 부재로 자녀들까지 다양한 문제에 노출된 상태로 요약된다. 그러나 ‘가족’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재산이며 살아가는 힘과 동기를 부여해 주는 존재이고, 가장 의지가 되는 대상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이 현실의 어려움을 인내하고 극복하는 힘이 된다(Kim et al., 2012; Korea Hana Foundation, 2019; Yi et al., 2007).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의 정착과정을 이겨나가는 의미를 가족에게서 찾으려 하며, 또 현실적으로 정착과정을 가족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볼 때 이들의 가족관계개선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기능적인 가족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가족역량을 강화하는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복잡적이고 중층적인 가족원의 스트레스가 가족 안에서 서로 부딪치는 상황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용서하며 이해하고, 나아가 이들의 삶의 의미를 증진시켜주는 가족관계를 만들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은 경제적응원, 취업지원, 소비자교육, 사회적응, 진로상담 등 경제와 생활에 관한 것과, 심리적 적응과 정신건강 증진, 대인관계개선 등에 집중되었으며(Cho & Choi, 2013; Choi, Park & Joung, 2009; Kang, Kim & Sohn, 2016; Kang, Lee & Lee, 2010), 가족관계증진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선행단계로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높은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가족형성의 특성,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개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들이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으나, 기존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본인들의 삶에 대한 기술 내용을 분석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가족 구성원들을 직접 대면하여 상담하면서 마주하는 남한 및 북한출신 현장전문가들의 시각을 통해 이들의 가족문제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는 대상자들의 가족관계문제를 내부자의 시각이 아닌 제3자의 관찰을 통해 파악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특히, 이 관찰자들은 교육현장 및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전문가들로서, 각 분야의 현장에서 관찰되는 대상자들의 문제상황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해석을 해나가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가정된다. 또한, 한명의 현장전문가가 관찰하고 경험하는 북한이탈주민가족이

다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 개인을 면접하는 것과는 달리, 서비스 공급자의 입장에서 포착되는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의 특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견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현장전문가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라 하겠다. 특히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이들의 가족관계 문제의 다층성과 다양성 등을 서비스 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II. 북한이탈주민 가족 관련 선행연구 고찰

1.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형성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형성은 단선적이지 않으며, 탈북 이후 중국을 거쳐 남한에 정착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이 반복되고,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반복되고 있다(Kim, 2018; Yi et al., 2007). 북한이탈주민 가족은 부부의 출신지가 어디이며 언제 어디에서 결혼했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합 유형으로 나타난다. 북한에서의 북남과 북녀의 결합, 남한 입국 이후의 북남과 북녀의 결합, 남한입국 이후 북남과 남녀의 결합, 남한입국 이후 남남과 북녀의 결합, 북한사람과 조선족의 결합, 북한사람과 한족의 결합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이질적인 조합에 따른 차이로 인하여 별거와 이혼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가족을 재구성하는 유형도 다양하다. 북한에 잔류하던 가족을 남한으로 데리고 와서 재결합하는 유형, 중국에서 결혼한 남편과 한국에서 가족을 재구성하는 유형, 또는

남한에서 가족을 새롭게 구성하는 유형 등이 있다(Kim, 2018). 그러나 남한에서 북한의 잔류 가족들과 재결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는 북한에서 경제적 필요에 의해 결혼한 경우가 많아서 배우자에 대한 애착이 크지 않고, 탈북 이전에 이미 관계가 해체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남한에서 재결합을 하더라도 북한사회의 가부장적 가치관, 가정폭력 경험, 남한사회에서 적응문제로 인한 갈등, 남성이 남한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갈등 등 수많은 갈등의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중국에서 결혼한 남편과 한국에서 가족을 재구성한 경우 중국에서 만난 남편과 유대나 애정이 있기 때문이기 보다는 자신이 힘들 때 보호해 주고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도와줄 처지가 되었을 때에 도와주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Yi, Kim & Chin, 2009). 남한에서 새로운 가족을 구성할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들끼리의 동거 형태를 선호하는데, 이는 혼인신고를 하면 관계가 제도화되어 생계급여가 중단되어 경제적인 손실 초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이 33%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Korea Hana Foundation, 2017).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출신 배우자의 결합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결혼의 의미와 목적, 성역할, 가치, 의사소통, 문제해결 방법, 주변과의 관계 형성, 양육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경험을 하게 된다(Lee, 2009).

2.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부부관계

북한이탈주민 가족은 사회관계망이 빈약하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질은 더욱 중요하고,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부부관계의 질적 향상이 중요한 개입요소가 될 수 있다(Chung &

Kim, 2015). 남한출신 남성과 북한이탈여성 간 부부관계에서의 갈등은 문화적 이질성을 간과하는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이탈여성들이 국제이주여성과 다르게 자신과 외모와 언어가 비슷하고 별도의 비자나 국적취득을 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둘 사이의 문화적 이질성이 쉽게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남한출신 남성들은 북한이탈여성의 욕구나 정체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인지하지 못하고, 북한이탈여성들은 이주과정에서 겪은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결혼을 선택하면서 낯선 문화에서 가족의 발달적 과업들이 가져다주는 문제들과 더불어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문제가 복합적으로 대두된다. 남한출신 여성과 북한이탈주민 남성 간 부부관계에서의 갈등은 북한출신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와 문화적 이질성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Lee & Kim, 2007). 북한출신 남성은 유교적이고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과 태도를 강하게 표출하며, 여성의 가정 내 기여는 무시하는 등 남한출신 여성과의 부부관계에서 갈등을 초래하고, 북한출신 남성들은 갈등 상황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또한 자녀양육에 있어서는 자녀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적 역할과 내용은 남한출신 아내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지만, 자녀와의 문제 가운데 교육 외에 가치관이나 의견 차이에 있어서는 북한이탈남성과 자녀 사이의 갈등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출신 부부는 타협을 통해 적응해가는 과정을 보고하기도 하였는데(Kim, 2010; Lee, 2009), 우선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이 개인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가 복합적으로 발현된 문제로 이해하게 된다. 부부가 결혼생활이 지속되고 부부 간의 신뢰가 형성되면서 서로의 문화적·개인적인 차이를 이해하게 되고 심리적 갈등은 감소하게 된다고 하였다.

북한이탈주민 간 부부관계에서의 갈등은 부부

간 성역할 인식이나 태도의 차이로 인한 갈등, 남한에서 부부의 역할변화와 권력구도 변화에 따른 갈등, 안정된 직장이 없고 취직이 잘 안 되는 남편의 입지로 인한 경제적인 갈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Lee & Kim, 2007; Yoon, Park, Yoon, Chang & Lim, 2007). 남한에서의 정착 초기에 여성들이 더 빠르게 경제적으로 적응하며 우위를 보임으로써 남편은 권위감 상실을 느끼기도 하며, 강한 가부장적 가치를 가진 북한 출신 남성들이 남한에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가족 내 가장으로서의 권위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권위적인 태도를 더 강화시키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 부부가 남한사회에 정착하면서 북한사회에서 체득한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바뀌는 과정에서 성별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 남성들에게는 남한 정착 이후에도 가부장주의나 남존여비 등 북한사회의 강한 유교적 사상이 남아있는 반면, 여성들은 남한에 입국한 이후 남한의 양성 평등적 가치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역할 태도와 인식이 빠르게 변화한다. 또한 북한이탈여성의 상대적인 지위향상으로 인한 권력구조의 변화는 북한이탈주민 부부의 부부권력 및 역할분담에 있어서 갈등유발의 소지가 있다.

북한이탈여성과 조선족이나 한족 남성 간 부부관계에서는 남편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부부갈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2018). 중국에서의 가족구성은 북한의 잔류 가족을 지원하거나 한국행을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는 한국에 데려오려고 하나, 중국인 남편에 대해서는 초청을 회피하거나, 초청을 시도하더라도 책임감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남한에서 중국인 남편과 가족을 재구성하더라도 남한사회에서 신분상의 변화와 적응문제로 부부 간 갈등이 발생하고 가족해체를 경험하기도 한다. 최근 북한이탈주민 배우자의 국적이 북한이나 남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등으로 다양해지

면서 북한이탈주민 부부의 부부관계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한국인과 결혼한 부부의 사회 적응이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과 같은 한국인과 결혼한 부부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보고 되기도 하였다(Chung & Kim, 2015).

3.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

북한이탈주민 부모는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Hong et al., 2012; Kim et al., 2012). 이들은 남한에서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취업으로 인하여 자녀를 방치해둔 경험이 많고, 자녀양육 방식 및 정보의 부족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북한에서 엄하고 센 자녀양육 방식이 체화되었기 때문에 남한의 부드러운 자녀양육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과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Lee, 2005).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가족의 자녀 또한 부모로부터의 보살핌이나 학업지원의 부재, 불안정한 생활, 학업결손, 학교적응의 어려움, 중도탈락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청소년 자녀의 경우 남한으로 오기 전에 평균 3년 정도의 기간을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해체와 재구성 과정의 거쳐 복합가족을 형성하거나 중도입국 과정에서 부모와 별거기간을 거친 경우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나 부모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Hong et al., 2012). 이들에게 학교생활 적응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하나원을 수료한 이후 학교선정 문제, 친구문제, 학습부진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적응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갈등이 표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탈북과정에서 어머니가 주도하는 가족

해체와 재구성 경험과 관련된 자녀들의 트라우마는 부모자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자녀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 해체와 재구성을 경험하고,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머니가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Na, 2014). 자녀가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자녀는 탈북과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학력 차이, 늦은 취학으로 인한 나이 문제, 상급학교 진학 문제 등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입국 이후에 문화충격을 받기도 하였다(Shin & Kim, 2015). 북한 사회의 가부장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부모와 남한 사회의 민주적인 사회문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자녀들의 사고방식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나타났고(Lee & Sung, 2001),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 편견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모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Hong et al., 2012). 계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갈등이 발생하였다. 북한이탈여성들이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면서 남한에서 새로이 구성된 가족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계부와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에는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갈등, 계부가 자녀에 대한 지원과 양육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갈등, 계부가 자녀의 한국사회 부적응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의 갈등 등이 있다(Hong et al., 2012).

III. 연구방법

경우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자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연구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7명으로, 모두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실무자들이다. 이들의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한 것과 같다.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삶을 이해하고 이들이 처한 어려움과 해결과정을 제안할 수 있는 현장전문가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하나센터 상담사 2명, 통일전담교육사 2명, 대안학교 교장선생님, 북한체제 트라우마 치유상담센터 대표 등이 참여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이 근무하는 기관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이들 중 북한 출신 전문가는 4명, 남한 출신 전문가는 3명이었으며 근무기간은 1년 이상에서 14년까지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이 주로 맡은 업무는 상담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가족을 위한 상담업무 지원이며 통일전담교육사의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총 4단계로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1단계와 2단계는 면접 기획 및 진행에 관련된 것이고, 3단계 4단계는 자료 분석과 관련된 것으로, 1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의 모집과 면접 질문의 작성 및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면접 과정에 대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2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사전 동의하에 면접 내용을 녹음과 동시에 기록하였으며, 면접 과정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애매한 부분은 질문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면접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심층면접에는 현재 북한이탈주민과 자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각 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사, 통일전담교육사, 대안학교 교장 등 총 7명이 참여하였다. 심층면접은 2018년 9월과 10월 중에 각 기관의 사무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s	Sex	Region	Job position	Years of service	Years since defection	Nationality
A	Female	Suwon	Counselor, mental health support center	8	-	Korean
B	Female	Goyang	Unification education teacher	3	10	North Korean refugee
C	Male	Seoul	Counselor, Seoul Hana Center	9	-	Korean
D	Female	Seoul	Counselor, North Korea System Trauma Healing & Counseling Center	13	18	North Korean refugee
E	Female	Seoul	Unification education teacher	8	9	North Korean refugee
F	Male	Seoul	President, alternative school for North Korean refugees	14	-	Korean
G	Female	Pyeongtaek	Counselor, Gyeonggi Hana Center	2	5	North Korean refugee

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참가자별로 면접 시간은 약 1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가족, 상담, 질적 연구 분야에서 연구 경험을 축적한 연구자가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 내용은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녹음되었으며, 녹음을 원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즉석에서 바로 컴퓨터로 응답 내용을 기록하였다. 연구보조자 2인이 기록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면접 후 녹음내용을 모두 전사하였다.

연구자의 윤리적 고려는 면접이 시작되기 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자의 신분을 밝히고 연구자가 연구참여동의서 내용을 한 줄씩 천천히 읽으면서 연구목적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어느 때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고, 연구과정에 대한 동의와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두로 받고 이를 녹음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면접 내용 및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을 약속하여 확보하였다.

3. 면접 질문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기관 종사자에게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형성,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심층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북한이탈가족의 가족형성 유형에 따른 특성과 강점을 질문하였고, 부부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부부갈등의 원인, 갈등대처, 부부생활의 원동력과 강점,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북한이탈가족 부모자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녀양육의 어려움,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자녀양육에 대한 노력,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 자녀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4. 자료 분석

전사된 심층면접 내용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면접 내용의 분석과정 및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족 전문가(교수) 3인으로부터 분석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구하였다. 본 연구가 진행된 총 4단계 가운데 3단계와 4단계가 자료 분석 단계로서, 3단계에서는 심층면접 내용에서 중요한 개념들과 특이사항을 점검하였다. 4단계에서는 전사된 녹음 기록을 검토하여 참여자들의 반응에 대한 하위범주들을 명명하고 유사한 내용을 범주화한 후 주제를 정리하였다.

5. 엄격성 평가방법

본 연구에서는 엄격성 평가방법으로 Lincoln과 Guba(1985)가 구분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평가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사실적 가치는 참여자의 지각과 체험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전문가들에게 면담 기록 내용과 분석 결과의 일치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실무자에게 재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지는 않았다. 적용성은 연구결과를 연구상황 이외의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연구자와 함께 연구과정과 결과의 실제적이고 이론적인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일관성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결과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인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을 자세히 기록하도 질적연구 전문가의 직접 참여를 통한 평가로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은 연구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모든 편견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이

해 정도와 가정 등을 확인하고 연구과정 내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반성적 고찰을 지속하는 것으로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행지식 때문에 자료분석의 판단중지, 차단의 엄격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엄밀성 제고 방안으로 1차 자료 분석과 2차 자료 분석의 과정에서 질적 연구자 1인(교수), 정책분석 연구자 1인(교수) 및 북한이탈주민 연구자 1인(교수)과의 토론과 조언으로 개인적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병리적이고 개인 내부 지향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수정하였으며, 사실을 분석과정 내내 심사숙고하였다. 또한 실무자들과의 심층면접에서 초기에는 특별한 질문 없이 연구참여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연구주제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연구자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언급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지양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면접의 범주 분석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1. 가족형성과 특성

1) 결혼동기

북한이탈주민이 결혼을 통하여 가족을 형성하려는 주된 동기는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외로움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도 있지만 한국에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

Table 2.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Subject	Categories	Sub-categories
Family formation	Motivations for marriage	Relief of financial burden, loneliness
	Nationality union	North Korean couples, North Korean wife and South Korean husband, South Korean wife and North Korean husband, North Korean wife and Chinese husband
	Marriage type	Cohabitation, remarriage
Marital relationship	Causes of marital conflicts	Children left behind in North Korea or China, husband's patriarchal attitudes, economic hardships, communication problems, cultural differences
	Response to marital conflicts	Avoid each other, get divorced, rely on violence or indulge themselves in addictions
	Marital strengths	Patience, resilience
Parent-child relationship	Difficulties in raising children	Economic hardships, ignorance about South Korean culture, overloaded parental responsibilities, problems in peer relationship of the child, child's reluctance to reveal one's origin
	Parent-child conflicts	Parents' excessive suppression on academic performance of the child, unstable affection
	Response to parent-child conflicts	Absence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child running away from home, passive response, seeking for social support

하여 결혼을 선택하거나, 한국에 들어오기 전 중국에서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가족이라는 기반을 마련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결혼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결혼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자 하였다. 외롭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하고 삶을 나누기 위해 결혼을 하였고, 혼자 생활하기 어렵고 중국에서 결혼생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결혼할 대상을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라는 권유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선택에 있어서 심리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원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① 경제적 부담 완화

“대부분 처음에는 북한가족에 대한 죄책감 이야기를 하는데 본론은 필요한 것이 돈이다. 여자분들이 선택해서 경제적 기반을 갖고 싶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죠.” (참여자 A)

“경제적 부담 같은 것도 해결해야죠. 그리고 중국에서의 가정생활 하다가 오셨기 때문에 유지하시려고 재혼하려는 것도 있고요. 처음에는 기반이 없고 가족적인 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로 만난 경우라는 거죠.” (참여자 G)

② 외로움 해소

“일차적인 욕구를 만족하기 위한 것, 서로 의사소통하고 삶을 나누기 위해 쉽게 만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헤어지기도 하죠. 대한민국의 부부가 불편한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부부가 아닌 것처럼 살고 유혹에 쉽게 빠진 것이 특징이 있는 반면 순수하고 솔직하고 건강한 의미도 있

어 보여요.” (참여자 C)

“중국이나 북한에 아이가 있을 때 접근불가여서 한국에서 외롭기 때문에 결혼하죠. 혼자 버티기 힘들고 정착초기에 결혼에 대한 권유를 많이 받기도 하죠.” (참여자 A)

“외로워서 만나고 만나는 중에도 더 좋은 대상이 있지 않을까 선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상황이 많이 보이는 것이 속상할 때가 많아요. 북한에서 살다가 중국에서 어쩔 수 없이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수년, 길게는 수십 년 살다가 한국에 와서 또 다른 대상을 만나는 거죠.” (참여자 G)

2) 부부구성 및 유형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부부구성 유형은 북한남성과 북한여성, 한국남성과 북한여성, 중국남성과 북한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북한남성과 북한여성으로 구성된 부부는 북한사람들끼리여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문화와 정서가 유사한 부분이 큰 특징으로 나타났으나, 북한사람들끼리만 살다보니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이 다소 느리다는 내용도 있었다. 한국남성과 북한여성으로 구성된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감대가 낮고 부부관계 유지가 어려워져 대부분 많이 헤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적응을 잘 해서 잘 사는 부부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이질적 특성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로 언급하였다. 중국남성과 북한여성으로 구성된 부부의 경우 중국에서는 부인이 중국남성의 도움을 받았다면, 한국에 와서는 북한여성의 지위가 더 높아져 중국에서 온 남편과 이혼하기도 하였다. 북한여성이 중국에서 남편으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한 의무감과 자녀 때문에 이혼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결

혼의 안정성은 낮았다.

① 북한남성과 북한여성

“이들의 결혼생활은 다양한데 북한사람들끼리는 공감대가 있고 문화나 정서가 같고 해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편하죠. 그러나 북한사람들끼리 살다보니 한국을 이해하는 것이 뒤지고 집에서 북한문화와 음식을 유지하니까 한국 정착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참여자 B)

“중국인을 만났다가 한국인 만났다가 탈북민 부부가 다시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서로 공감대가 된다는 거죠.” (참여자 G)

② 한국남성과 북한여성

“서로에 대한 공감대가 떨어지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서운한 게 많죠. 북한 사람 말이 거칠고 가식은 없고 남한사람은 자기자기한 면이 있으나 참 안타까운 점은 북한여성을 만나서 북한에 대한 관심은 갖는데 북한의 이야기에 대한 공감대나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면이 없어서 서운해 하기도 해요.” (참여자 B)

“한국 사람하고 만나서는 거의 다 70-80% 깨지거든요. 남성, 여성 상관없이 만나면 거의 깨져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무시하는 것 같고 북한여성의 선입견이 커요. 말 한마디에 되게 예민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유지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애 낳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요.” (참여자 G)

③ 중국남성과 북한여성

“여성들이 한국에 먼저 오고 나중에 한족남편을 데려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탈북자들이 팔

러가는 곳이 한족한테 일수도 있고 조선족한테 일수도 있는데 사실 조선족들 간에 가격은 별로 안 좋아요. 우리나라 가부장제 제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의 뭐 탈북여성들에 대한 태도라든지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들어온 남자들 보면 조선족은 거의 없고 거의 다 한족이에요.” (참여자 F)

“중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대체로 많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하시는데 국제결혼해서 주로 한국, 중국인 남편들이 오거든요. 한족이.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안 되잖아요. 한편으론 본인은 여기에 슬슬 적응을 하고 솔직히 중국에서는 보호를 받고 아무것도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었던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위가 조금씩 바뀌어져요.” (참여자 G)

3) 결혼유형

북한이탈주민의 결혼유형으로는 동거와 재혼이 적지 않았다. 중국에서 초혼으로 결혼해서 한국에 온 경우 또는 사실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를 하는 이유로는 결혼으로 등록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거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유지 목적이 강하게 나타났다. 재혼의 경우는 중국에서 결혼 경험이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며, 한국에 와서도 경제적 또는 정서적 안정 등을 이유로 또다시 결혼을 하게 됨을 짐작할 수 있었다.

① 동거

“대부분 사실혼 관계가 많아요. 결혼등록하면 집을 양쪽 다 같이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경제적 책임 하다가 부담 없이 헤어지는 경우가 많죠. 수급자자격 유지를 위해서요.” (참여자 A)

② 재혼

“재혼이 많아요. 경로가 중국을 거쳐서 오는 경우가 많아 죽음을 면하기 위해 생존을 선택하고 인신매매 등을 하고 농촌총각하고 결혼하죠. 나이가 많거나... 중국에서도 여건이 없을 때 외국여성을 찾아요, 반복된 실수를 하면서 좋은 짝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참여자 C)

2. 부부관계

1) 부부갈등 원인

북한이탈주민 부부의 갈등 원인으로는 두고 온 자녀문제, 남편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 태도, 경제적 문제, 의사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등이 있었다. 북한이나 중국에 두고 온 자녀를 남편이 데려온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북한여성은 서운함을 나타내었고 이것이 부부갈등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북한출신 남성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북한출신 여성들은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이 자신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양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이들 부부가 양성평등이라는 의미 자체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 부부간 차이로 인한 갈등이 표출되었다. 또 다른 부부갈등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문제가 있었다. 남편은 경제적 주도권을 두고 부인과 갈등을 빚거나 경제적 공동체로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한국남성을 만난 북한이탈여성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부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부간 정직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국남성과 북한여성 부부의 경우에는 언어 유창성이 떨어져서 소통이 되지 않아 힘든 부분이 있었다. 의사소통 문제에 있어서는 언어적 능력, 남

한 말투와 다른 북한여성의 말투, 남한 배우자에 대한 북한 배우자의 자각지심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두고 온 자녀문제

“북한여성과 한국남편이 결혼 시 북한이나 중국의 자녀를 데려올 때 처음엔 오케이나 나중엔 뒤로 빼는 경우, 중국의 자녀를 계속 뒷바라지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내재된 관계가 되요. 안 봤을 때는 괜찮으나 데려온다고 했을 때 남편은 너무 부담을 가져요. (중략) 서로 합의된 경우 데려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 갈등이 폭발하고 특히 자녀가 생기면 ‘그 아이에게 집중하지 왜 중국의 자녀에게 신경 쓰느냐?’고 불만을 가져요.” (참여자 A)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자녀를 처음엔 데려온다고 하는데 막상 살다보면 이야기 안 해주고 서운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한에 있는 가족만 챙기고 북한에 있는 가족에는 관심이 없어요.” (참여자 B)

② 가부장적 태도

“북한 남성들이 많이 권위적이죠. 여자들은 남편을 떠받들고 여자는 급변하고 여자 입장에서 남편은 안 변하고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되죠.” (참여자 C)

“북한 남성들은 여자가 남자 따귀를 때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남성권위주의가 여전히 많죠. 그런데 중국남자들도 그렇죠.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은 차라리 북한에서 온 남자들이 더 빠른 편이에요.” (참여자 D)

“아주 수동적이고 현모양처고, 본인은 양성평

등을 남자한테 원해요. 그런데 쌍방에 서로 존중하고 이 양성평등이라는 의미를 자기는 원하면서 남자는 원하지 않은 것, ‘너는 나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것이 존재해요. 그런 것들이 정확한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오해를 넣고 그런 거죠.”(참여자 G)

③ 경제적 문제

“경제적 주도권을 가지고 많이 싸워요. 남편은 힘들게 벌어왔다, 여자들은 경제적 오픈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중국에 있는 자녀를 지원해야 하는데 생활비 외에 경제 돈을 쌓아야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서 ‘나도 알바 할 수 있다’ 하고 유혹쪽으로 쉽게 빠져 이혼으로 가자 식이에요.” (참여자 A)

“상대적으로 탈북민들이 한국 사람하고 만났을 때가 대개 열악해요.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만나는 상대가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죠. 더 열악한 사람이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북한이탈주민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혼 남성, 좋은 사람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여자 G)

④ 의사소통의 문제

“탈북자들끼리 살아도 거짓 자기로 살기 때문에 정직한 의사소통이 안돼요.” (참여자 D)

“중요한 것은 언어가 소통이 안돼요. 중국인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만났거나 본인이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면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가족형태가 되게 많아요. 의사소통이 잘 안되니까 힘들어요. 남자는 또 남자대로 말을 전혀 못 알아들으니깐 무슨 행동을 하는지가 모든 게 다 의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참여자 G)

⑤ 문화적 차이 갈등

“한국남편들은 북한여성의 억양과 말투가 다른 것을 무척 싫어해요. 말투가 달라서 불편해하기도 하고요. 남편이 말투 좀 고치라고 해서 노력해도 잘 안 되어서 서운했다고 해요.” (참여자 A)

“남한배우자에 대한 탈북배우자의 자격지심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탈북자라는 것을 굳이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으려는 마음, 그러나 사실 탈북했다는 것은 스스로 인간이 되는 길을 선택한 자긍심을 가질 일인데요.”(참여자 D)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듣는. 아~ 이 사람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전제를 깔기 때문에 자꾸만 바가지 굵고, 그리고 자기는 남자를 선택 안했어도 남자는 나에게 전적으로 무언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남자는 여자가 이해가 안 돼.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싸워버려요.” (참여자 G)

2) 부부갈등 대처

북한이탈주민 부부는 부부갈등이 발생하면 회피, 이혼, 폭력과 중독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에 대한 어떠한 대처방법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회피의 경우 갈등을 유발한 문제에 대해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보다는 갈등을 내재화시켜 드러내지 않다가, 결국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혼을 하는 경우 결혼에 대한 복합적인 요인들과 관련 없이 쉽게 이혼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여 졌으며, 폭

력과 중독 등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부정적 대처방법도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① 회피

“자녀문제에 대해 진중한 대화를 하지 않고 가볍게라도 중간 중간 물어두고 있는 경향이 커요. 결국 이혼까지 가면 난 할 도리 다했고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죠.” (참여자 A)

② 이혼을 선택

“개인 성격의 문제이기도 하나 얹히고설킨 게 없어서 헤어지는 확률이 높아요. 그 비중이 클 거예요.” (참여자 B)

③ 폭력과 중독

“탈북남성들은 정신적 어려움을 가정폭력 문제, 알콜 문제, 마약중독 문제로 주로 풀려고 해요.” (참여자 D)

3) 부부의 강점

북한이탈주민 부부의 강점으로는 인내심과 회복탄력성 등을 언급하였다. 북한에서의 삶과 한국에 들어오기 전의 힘든 삶을 원동력으로 하여 인내심이 습관화되어 한국에서는 힘들어도 인내하는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도 어려운 삶의 경험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북한여성의 경우 이러한 회복탄력성과 더불어 참고 맞추는 헌신적인 특성도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① 인내심

“일단 비교하면 예전과 지금 차이가 나죠. 북

한은 학교 끝나고 농사지으러 가야 하든지 장사 하든지 해야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비교가 되죠, 나도 중국 4년 살았는데 아파도 아플 자력이 없어요. 북한에 있는 자식 먹여 살리려고 오로지 북한에서는 어려운 삶이었죠. 지금 쌀밥 먹고살고 있잖아요. 그 원동력이 되고 인내력이 습관이 되었어요. 하루 한 끼 먹는 것쯤은 배고픔을 모르겠고 삶의 초심을 잃지 않고 사는 것 많지는 않지만, 북한사람들이 치과, 허리 등 많이 아프지만 앓지 못하는 것은 북한에 둔 가족, 잘 살자고 온 사람이라 쓰러지지도 못해요.” (참여자 B)

② 회복탄력성

“안정적 기반이 생기면 북한여성들이 아주 헌신적이죠. 이혼 위기까지 가더라도 참고 맞추는 부분이 크고요. 이혼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이 여자에게 더 많아요. 가정 위기나 자녀, 외로움 등 더 힘들지만 여성들이 더 강해요. 처음엔 이혼할 이유를 찾아 달라 하지만 여성의 경우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 타당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죠. 이런 부분이 강점으로 작용해요.” (참여자 A)

3. 부모자녀관계

1) 자녀양육 어려움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한국에서의 낮은 부모역할, 자녀의 또래관계 문제 등을 언급하였다.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해줄 수 없는 상황과 더불어 자녀들도 한국에서의 삶이 녹록치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이탈가족 부모들은 한국의 문화와 교육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먹고 살기에 바빠서 학부모교육이나 자녀의 진로교육 등에 무관심한 부모들도 있었

다. 자녀의 학교교육에서 부모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자녀의 또래관계 문제가 언급되었는데, 자녀가 ‘왕따’를 당하고, 기숙사 생활에서 또래의 부정적인 행동을 모방하는 등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하여 부모로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가 북한출신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이 크죠. 특히 한부모가 많아서 여성이 직장생활 해야 해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잘 안 되서 비보호청소년(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말해서 배우는 것이 어렵구요.” (참여자 C)

② 한국에서 낯선 부모역할

“부모는 한국교육과 문화에 대한 무지가 있어요. 먹고사느라 시간이 없어서요. 무지의 예로는 왜 숙제를 많이 안 내주냐? 학교에서 다 해줘야지 왜 부모가 또 다른 뒷바라지를 해야 하나? 왜 담임이 매번 바뀌느냐? 등 먹고사느라 바빠서 학부모교육, 진로교육 등에 오지 못하고 아예 안 오고 무관심한 부모들이 많죠.” (참여자 D)

“한국에서의 부모역할은 어려워요. 북한에서는 학교가 제공하고 책임져주는데 학교에서 해준 게 뭐있냐 하고 물어요. 여긴 1년마다 바뀌고, 과외, 사전학습 부모가 해야 할 게 많아서 어려워해요.” (참여자 C)

③ 또래관계의 어려움

“숙제 땀에 북한 다시 보내 달라 하고 친구관계에도 왕따가 있어요. 북한도 왕따가 있긴 한데 여긴 매장 당하듯이 하니까 또래관계에 힘들어하죠.” (참여자 A)

“엄마, 아빠가 타문화권 밝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학교 오지 마. 공부해서 학교 갈 거야. 장학제도도 없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려워해요. 기숙형 학교에서 온 아이는 먹고 휩쓸리고, 나쁜 것 많이 배워요. 심리치료지원해서 받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참여자 B)

④ 출신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음

“아이들이 탈북자인 것을 알리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어요. 탈북아동들이 ‘친구 없다’, ‘재미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고, 학급에 도움이 따라붙지 않는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참여자 E)

“애들이 나는 북한에서 왔다. 중국에서 왔다 이런 말하기 싫어해요. 어차피 처음에는 드러나잖아요. 언어나 외모 상 드러나는 부분에서 드러났다가 애들이 1-2년 지나면 싹 적응하는 경우도 많아요. 3-4년 지나고 그러면 내가 괜찮다 싶으면 학교를 싹 이전해요. 지역을 이전해서 한국 애들처럼. 탈북자 말하기도 싫어해요. 그때부터는 한국 애처럼... 대개 세 보이지.” (참여자 G)

2) 부모자녀 갈등 문제

북한이탈주민 부모자녀 간에는 부모의 과도한 교육 압력이나 불안정한 애착 관계로 갈등이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부모는 자녀가 감당할 수 없

는 정도로 지나치게 교육적 압력을 가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지나친 경쟁적 교육문화의 영향일 수도 있으나 무조건적으로 공부를 강조하는 분위기와 자녀들이 거기에 따르지 않고 놀거나 게임만 하는 양상에서 부모자녀 간 갈등은 예견되어 보였다. 또한 학업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도입국자녀나 학업공백이 있는 북한출신자녀, 한국에서 태어나도 돌봄의 지원이 거의 없는 자녀들의 삶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 힘든 한국 적응기를 보여주었다. 불안정한 애착으로 인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와 부모와의 지각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반면, 부모는 헌신적이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결국엔 또다시 분리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자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겨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① 부모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어려움

“아이한테 안 해도 되는 프로그램도 억지로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눈높이 교육, 화상영어교육 등 아이에게 과부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감당이 안 되고 부담을 주는 것에 너무 집착해요. 자녀가 정착을 잘해야 하는데 학업성적, 건강 등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학교에서 기절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좋은 거다’라고 강조하죠. 아이에게 부정적 인식 즉 북한은 안 좋은 곳이고, 너 때문에 희생하고 내가 목숨 걸고 왔다.’라고 세뇌 아닌 세뇌를 시켜요.” (참여자 A)

“북한 엄마는 주입식, 무조건 공부해야 한다고 해요. 여긴 자기 주도적 학습이잖아요. 공부 안 해서 속상해 하고 있어요. 본인이 잘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하라고 하고 아이들 놓고 핸드폰 게임이나 하죠.” (참여자 B)

“탈북아이들은 북한에서 넘어온 아이, 중국에서 온 아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세 부류로 나뉘어져요. 이 중에 중국에서 온 아이들이 제일 열악한 학습 환경에 있어요. 북한에서 온 아이도 학습공백이 최소 1년은 있어서 학업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도 부모들의 삶의 어렵기 때문에 돌봄이 적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참여자 E)

② 불안정한 애착으로 인한 갈등

“중국에서 데려온 아이의 경우 1살에서 3살 정도까지 엄마랑 있다가 중국에 떨어져있는 경우, 엄마와 애착형성이 잘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와 엄마와의 갈등문제로 커지는 경우예요. 엄마는 자녀에게 헌신적,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노력도 하고 막상 현실적 선택에서 감당 안 되면 분리하는 거죠.” (참여자 A)

“학원이나 과외가 어렵기 때문에 탈북자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죠. 애네들이 학력인정도 안 되고 또 학력 인정되어도 실력이 안 되고 또 우리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이들을 떠나보내게 되죠. 그러면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떠나보내게 되는 거죠. 2차 두 번째 버려진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 더 심해지죠.” (참여자 F)

“상담하다 보면 애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북한에서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가 나중에 데리러 와가지고 이제 와서 뭐 이러나 그런 갈등관계 때문에 이 자녀관계 때문에 어른이 되어도 애들이 20살, 30살 되었는데 엄마가 그때 나 버려놓고 이제 와서 무슨...” (참여자 G)

3) 갈등대처

북한이탈주민 부모자녀 간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부모와 자녀 간 불통 관계, 자녀의 가출, 소극적 대처, 사회적지지 활용 등이 있었다. 부모 자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음으로써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이해하고 마음을 읽어주는 면이 부족하고 자녀의 입장에서도 부모에게 대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학교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 극단적인 갈등대처 방법으로 가출을 선택하는 자녀도 있었다. 가출은 자녀에게는 최고의 분노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모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되는 등 서로에게 상처를 받은 사실은 서로 강조하고 있었다. 건강한 사랑의 표현으로 갈등을 대처하기 보다는 착한아이가 되려고 엄마에게 맞춰주는 수동적인 대처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부모자녀의 갈등 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시부모 등 가족의 지원을 받거나,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전달체계, 학교,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재단이나 정부지원 등 공적전달체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부모와 자녀의 불통 관계

“모에게 함부로 자신의 마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등을 이야기 하지 못하고 압박감을 많이 받고 학교 와서 선생님께 이야기하면서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북한 엄마들은 상당히 말을 강하고 거칠게 해요. 말소리도 커서 아이들이 엄마들이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아이의 마음을 읽고, 심정을 이해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데 많이 부족하죠.” (참여자 E)

“문제는 대화가 잘 안되니까 제대로 된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기본적인 언어소통만 하는 거예요. 내면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오히려 우리 학교에서 소통이 잘 돼요.” (참여자 F)

② 자녀의 가출

“엄마가 너무 집착해서 심리적 스트레스 자극 받아요.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는데 북한에서는 무던히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가출하죠.” (참여자 A)

③ 소극적 대처

“아이들 중 엄마에게 의존하는 아이들이 있거나 반항하고 수용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착한 아이가 되려고 엄마에게 맞추려고 해요. ‘내가 잘 해야죠.’ 라고 아이들이 얘기해요.” (참여자 A)

④ 사회적 지지

“시부모가 잘 살면 도움 받고, 중국 사람인 경우도 있고, 청소년 자녀는 지역복지관에서 도움 많이 받아요. 바우처 때문에 도움 많이 받죠. 부모가 안정적이면 학원 가고, 복지관은 안가죠. 북한커뮤니티로부터 도움을 얻기도 하고요.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에 많이 의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여자 C)

“학교에 선생님 도움을 받거나 가까운데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 것에 많이 치중을 하죠. (중략) 탈북자부모들끼리 네트워크가 있어요. 아니면 회사에서 지인이나 친구 분들, 학부모들끼리는 안 만나요. 내가 아는 한국 언니나 이런 지인들로부터 조금 정보를 얻는 것 같고요.” (참여자 G)

“재단이나 통일부 지원이 많은 것 같아요. 상담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사람은 상담사가 알려주고요. 시댁은 거의 없고 민간단체 후원처가 우체국, 산업은행 등 잘 알고 있어요. 북한이탈자녀라는 게 티 안 나게, 제목에서 티 안 나는 “나라사랑 장학금” 같은 것에 도움을 받죠.” (참여자 A)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높은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가족형성,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과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결혼 동기가 상당히 도구적이라는 것이다. 즉,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 결혼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물론 남한 사람들도 결혼을 통해 그러한 것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랑”이라는 낭만적 결혼의 신화를 표면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편이나 현장전문가들의 관찰에서는 이들의 도구적 결혼동기가 매우 노골적으로 관찰된다고 한다. 이들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족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한 생명수와 같은 자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가족형성은 생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 연구들(Kim et al., 2012; Kim, Kim & Cho, 2016; Yi et al., 2009)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제 3국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생활에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참여자들조차도 가족은 안정감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기초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이탈가족에게 근본적인 가족형성의 의미와 중요성을 진정성 있게 심어주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형성 과정에서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연구결과들을 볼 때(Kim, 2018; Yi et al., 2007),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이들의 슬한 고난과 이별, 죽음, 재결합, 반복과 애증 등의 다양한 경험들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동안의 삶의 역정이 현재와 미래의가족의 삶에 미칠 의미와 중요성 등을 부각시켜, 어려움 많았던 삶에서 얻은 교훈과 강점을 동력으로 하여 현재와 미래의 가족생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부부구성 유형에 따른 특성도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의 부부가 함께 한국에 이주하여 정착한 부부보다 한국에 입국하여 북남북녀 부부, 남남북녀/북남남녀 부부, 중남북녀의 부부 등이 언급되었는데 다양한 조합에 따른 부부의 다양한 특성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질적인 특성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문화 차이 등으로 별거나 이혼 등의 가족해체가 발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이탈가족 부부구성 유형별로 가족문제와 적응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바탕으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가족 부부간 갈등은 부부의 결합유형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 이질성에 따른 갈등, 성역할 인식이나 태도의 차이로 인한 갈등, 남한에서의 역할변화와 권력구도 변화에 따르는 갈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기는 갈등 등 여러 갈등 요인에서의 차별성을 포괄할 수 있으려면 부부구성유형별 프로

그램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북녀 부부의 경우 높은 공감대와 유사한 정서가 있다는 강점을 강화하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으며, 남남북녀나 북남남녀 부부의 경우 서로에게 적응하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요구되며 가족해체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부부 적응을 위한 문화차이 갈등을 해소하는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중남북녀 부부의 경우 애정이나 신뢰보다는 중국에서 자신이 생존하는데 보호해주고 도움을 준 배우자에 대한 의무적 보상심리가 작용되고 있어 부부로서 신뢰와 존중, 애정에 기초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부부형성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이루어질 때 부부관계향상에 대한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결혼유형은 동거와 재혼이 많은 것도 특징적이다. 결혼보다 동거가 주는 경제적 이득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동거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Yi 등(2007)의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끼리 만나 새로운 가정을 구성하는데 동거형태를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혼인신고를 하면 관계가 제도화되어 생계급여가 중단되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재혼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앞서 결혼의 동기에서 언급한 가족형성을 통한 경제적·심리적 안정과 생존의 의미가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탈북여성은 탈북남성에 비해 가족과 재결합할 가능성이 높고, 남한사회에서 새롭게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 연구(Park & Kang, 2011)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거와 재혼은 초혼이 다수를 차지하며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남한사회의 가족관계에서 볼 때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결혼관계와 이질적인 가족문화로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관계 개입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규범이나 바람직한 것을 강조하는 내용보다는 각 가

족의 맥락적 상황을 존중하며 “가족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문제로 본다”는 가족문제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포스트모던 가족치료이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부부관계에서 보이는 특성은 갈등 원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북한이나 중국에 두고 온 자녀문제,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 의사소통문제,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갈등요인에 따라 필요한 내용들이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에 포함될 때 친밀한 관계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북한이나 중국에 두고 온 자녀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느끼는 서운함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입장 차이를 정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노력이 주어져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북한이나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은 그리움이나 죄책감 같은 정서적인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입국비용을 모아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초래함으로 남한사회 적응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하고, 남한에서 재구성된 가족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해체를 촉진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Kim et al., 2016; Kim, 2018). 그러나 배우자에게 이산가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부부관계의 적응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따라서 부부가 함께 잔류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합의 도출해내도록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에 잔류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리움을 덜어줄 수 있는 개입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변하지 않은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는 급변하는 여성의 가치관과의 간극을 더 넓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체제의 수직적 문화, 폭력적 문화, 가정 내에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가부장적 성역할 인식과 태도는 가족의 갈등과 결합하여 가정폭력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Kim, 2018).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성역할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부부 간 양성평등의 가치를 심어주어 협력적 관계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훈련이 포함된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부부 간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가장 기본적인 관계 향상의 요인으로 문화적 갈등과도 연관성이 높다. 남북한이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전제로 인하여 부부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과 남한의 화법과 억양 등 전달방식의 차이가 부부 간 의사소통의 문제가 되기도 하며, 남북한 언어표현의 차이, 북한의 거칠고 공격적인 표현 등이 상대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Lee, 2009). 따라서 부부가 경험하는 갈등의 원인이 의사소통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인식을 높여주고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알려주는 교육, 의사소통의 장애요인에 대한 제시, 그리고 부부간 의사소통 실천 훈련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부부가 이러한 갈등에 직면하여 대처하는 방법은 회피, 이혼, 폭력이나 중독 등으로 나타났다. 갈등에 대한 대처가 이렇게 역기능적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들이 갈등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처방법을 모르기 때문일 수 있다.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갈등상황을 제시하고, 그러한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해보며, 대처방법을 사례별로 연습해 보는 훈련을 통해 구체적인 갈등대처 방안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출신 부부라면 그들이 처한 갈등 상황이 개인적인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에도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자신과 배우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은 프로그램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Lee, 2009). 이처럼 문화적 배경이 다른 북한이탈주민 가족 배

우자의 문화적응을 돕는 실질적인 내용을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에 반영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족이 처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문화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부부관계가 좋았던 때, 고마움,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꼈던 때를 추억해보면서 긍정적 자원을 모색해보는 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탈북과정과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의 부부관계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활용하여 부부체계를 강화하는 강점 중심의 접근을 제안할 수 있다(Kim et al., 2012; Kim et al., 2016). 심층면접에서 드러난 북한이탈주민 부부의 인내심과 회복탄력성은 북한이탈과 제 3국을 통해서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생존경험이 고스란히 담겨진 강점으로서, 강점 중심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부상담의 기회를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 부부의 다양한 문제에 조기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부동반 취미활동 등을 포함하는 부부 대상의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자녀양육을 꼽았으며, 경제적 지원, 효율적인 부모역할 수행, 자녀의 원만한 교우관계에 기반한 학교생활 지원 등이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요소로 지적하였다. Hong 등(2012)도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에 있어서 경제적인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외에도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 자녀양육과 학습지도를 위한 지도와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느끼는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대처능력을 강화시켜주는 데 프로그램의 초점이 맞춰져

야 할 것이며,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자녀양육의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 자녀양육, 자녀학습을 지도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요구에 반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교육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의 요구가 다르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내용을 보다 내실화하고 참여자에게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미취학 자녀의 부모는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육아로 인하여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기 어려우며,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 적응문제와 보육비 등 그 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문제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의 부족, 자녀의 학교 적응에 대한 문제, 자녀의 교육체제와 학습지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 자녀의 학교생활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부모 또한 자녀의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고 자녀의 교육비 부담에 따르는 어려움이 자주 언급된다(Hong et al., 2012). 이와 같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자녀양육 어려움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부모자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로는 학업에 대한 과도한 부모의 압력과 불안정한 애착으로 인한 갈등관계를 들었다. 자녀는 탈북과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한 학력차이 등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였고, 부모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부모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북한사회의 가부장적 태도로 자녀에게 학업에 대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자녀와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북한이탈여

성들은 취업으로 인하여 자녀를 방치해 둔 경험이 많고 적절한 양육방식 및 정보가 부족하여 지역사회와 분리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였으며, 북한에서 엄하고 센 자녀양육방식이 체화되어 남한의 부드러운 양육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과 혼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Hong et al., 2012; Lee, 2005). 따라서 남한 사회에서의 부모역할과 자녀양육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이 보다 수용적이고 민주적인 양육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지원하는 개입 방안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남한 출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북한이탈주민 부모는 남한 사회의 가족문화, 자녀교육 방식, 민주적 생활양식, 열린 의사소통 방식 등을 관찰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Shin, 2018). 또한 북한이탈주민 가족 내 부모와 자녀 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도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자녀는 탈북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해체와 재구성을 경험함으로써 또 하나의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부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는 자녀가 이러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개입 및 상담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탈북과정에서 북한이나 중국에 두고 온 자녀와 남한에서 어렵게 재결합하였지만 부모의 수고와 어려움을 몰라주고 부모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자신의 기대와 다른 자녀에게 실망하고 예상치 못한 상실을 겪는 과정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Cho, 2012). 부모와 자녀가 함께 부모자녀관계와 가족의 의미를 재탐색하고, 부모의 구체적인 설명과 대화를 통해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부모는 자녀를 수용함으로써 부모자녀간 애정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할 것이다. 남한 입국 전 부모와 장시간 떨어져 있던 청소년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관계 및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부모와 자녀는 갈등을 미해결 상태로 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자녀가 가출을 감행하였고, 주변의 도움으로 갈등에 대처하기도 하였다. 갈등을 미해결 상태로 두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와 소통을 잘 하지 못하고, 자녀는 오히려 학교에서 교사와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결과는 가출이라는 행위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Kang(2012)도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서 경직된 의사소통, 역할갈등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가정 내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갈등해결의 첫 단추인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의 교육과 훈련은 부모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부모역할 멘토링, 북한이탈주민 가족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의 기회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선행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이들을 현장에서 돕고 있는 상담사, 교사 등 현장전문가들이 파악하고 있는 이들의 가족관계문제와 대처방식, 그리고 개입을 위한 접점이 되는 이들의 강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현장전문가들의 관찰은 대체로 “~하는 경향이 있다” “~와 비교해보면 ~하다” 라는 식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가족구성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평가하는 데 유익하였다. 특히, 현장에서 여러 사례들을 접해보았던 경험으로 인해 동거, 별거 등의 과정, 이와 관련된 국가적 지원

등에 대한 식견, 그리고 교사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관찰되는 자녀들의 어려움과 대처방식, 부모들의 참여 등에 대한 보고가 가능하여 선행연구에서 포착되지 못한 측면들을 조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질적연구 자료들과 양적 실태조사자료 등과 더불어 이들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 및 복지정책 수립에 균형을 맞추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Cho, H. N., & Choi, Y. S. (2013). An effectiveness of a Group Art Therapy Program with the solution focused model for North Korean married women defectors' psychological adaptation: Focusing on depression and guilty feeling caused by the family loss. *Korean Counselling Association*, 14(2), 1327-1345.
- Cho, Y. (2012). The experience of child reunification among North Korean women in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4(1), 197-222.
- Choi, B. Y., Kim, H. A., & Choi, Y. W. (2012). *Development of the manual for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Seoul: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 Choi, S. K., Park, S. M., & Joung, H. (2009).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North Korean young adult defectors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2(1), 73-83.
- Chung, Y. K., & Kim, H. J. (2015). The marital factors on social adapta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Family and Environment*

- Research*, 53(2), 157-168.
- Hong, S. A., Kim, S. Y., & Park, J. R. (2012). *Empowering parental capacity of the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Kang, K. M. (2006). Survey of Christian counselling methods for defectors who fail to assimilate into South Korea. *The Gospel and Counselling*, 7, 117-144.
- Kang, S. J., Kim, E. M., & Sohn, Y. M. (2016). The effects of self-power program for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in Hanawon on emotion, social support and commun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1(1), 137-149.
- Kang, S. J., Lee, J. C., & Lee, J. C. (2010). The Effectiveness of the Self-Power Program for psychologic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22(3), 673-706.
- Kim, H. A., Cho, Y. A., & Kim, Y. W. (2012). *A study on support system for North Korea defector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family types*. Seoul: North Korean Refugees Foundation (Research Paper 2012-04).
- Kim, H. A., Kim, Y. W., & Cho, Y. A. (2016). A Review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the North Korean refugee couples in South Korea through the CQR and the Grounded Theory. *Multiculture & Peace*, 10(3), 21-53.
- Kim, H. K. (2010). A Study on the predictors for marriage adjustment among North-South intercultural couples: Surveyed only on North Korean spous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5(1), 41-69.
- Kim, J. Y., Ryu, W. J., & Kim, J. M. (2014). A study on daily life stress and depression: Moderating effect of traumatic event.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46, 85-107.
- Kim, Y. J. (2018). *A study on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experience of the family separation and reconstru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Christian University, Seoul, Korea.
- Korea Hana Foundation (2017). *2016 Settlement survey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Seoul: Korea Hana Foundation.
- Korea Hana Foundation (2019). *2018 Social survey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Seoul: Korea Hana Foundation.
- Lee, B. M. (2005). A qualitative research on North Korean refugee parents' adaptation process as par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9(4), 691-726.
- Lee, K. Y., & Sung, H. S. (2001). Family relationship among North Korean migrant families in early adaptation: An empirical study centered on family members' percep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7, 243-271.
- Lee, M. Y. (2009). A narrative inquiry of the struggle and negotiation experience in the South Korean-North Korean refugee couple. *Korea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elfare*, 3(2), 91-121.
- Lee, M. Y., & Kim, H. K. (2007). Lived experience of overcoming migratory loss among North Korean refugee women who got married to South Korean ma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35, 525-554.
- Lincoln, Y. S., & Guba, E. G. (1985). *Effective evaluation*. New York: Jasey-Bass.
- Ministry of Unification (2019). Retrieved <https://www.unikorea.go.kr/>.
- Na, J. Y. (2014). Family disorganization in the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oral life story and trauma. *The Journal of the*

- Humanities for Unification*, 60, 97-133.
- Park, M., & Chung, S. (1999). A qualitative research on stressors and coping strategies that North Korean families experience in adapting to South Korean Society. *Sungkok Journalism Review*, 30(3), 595-716.
- Park, J. R., & Kang, D. W. (2011). A study on the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hips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from a feminist perspective: With a focus on changes to individual levels of acculturation in a migration process. *Locality and Globality: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35(2), 39-63.
- Shin, H. K., & Kim, H. K. (2015).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s of academic stress, family problem stress and post-traumatic stress of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11), 337-357.
- Shin, N. (2018). New dir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support policy through parental education program. *Multiculture & Peace*, 12(1), 207-235.
- Yi, S. H., Kim, C. D., & Chin, M. (2009). *Family dissolution and reorganiz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Yi, S. H., Cho, S. C., Kim, C. D., & Chin, M. (2007). *Family adaptation and psychological integ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Yoon, I. J., Park, Y. H., Yoon, Y. S., Chang, H. K., & Lim, I. S. (2007).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migrant families and changes in family relation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2(2), 89-108.

접 수 일: 2019. 12. 13

심 사 일: 2019. 12. 27

게재확정일: 2020. 01. 13